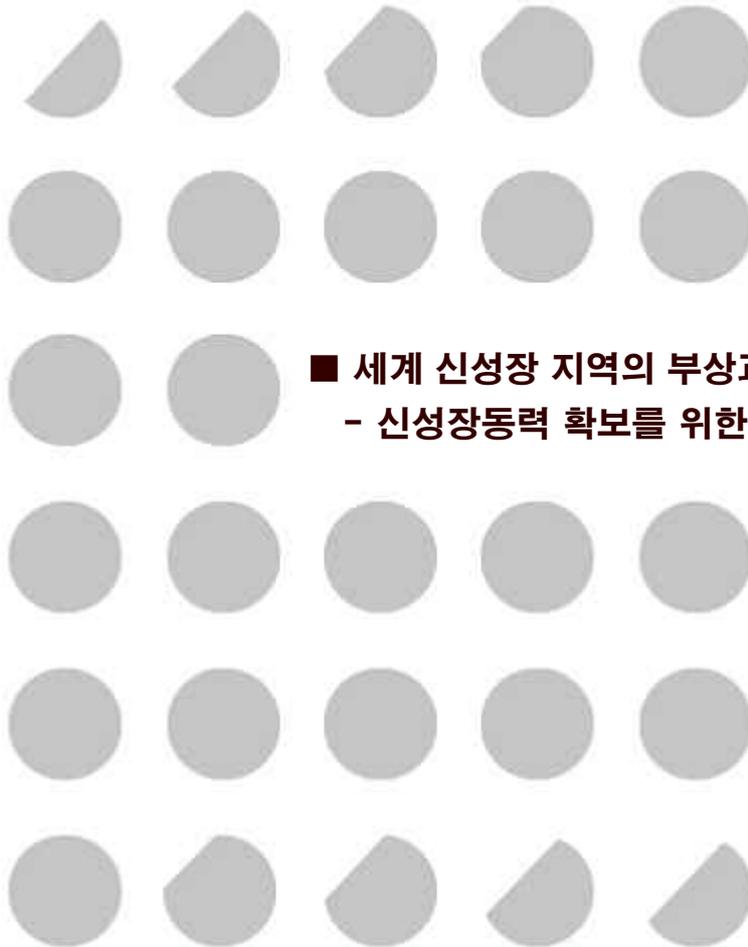




08-18 (통권 296호)

2008.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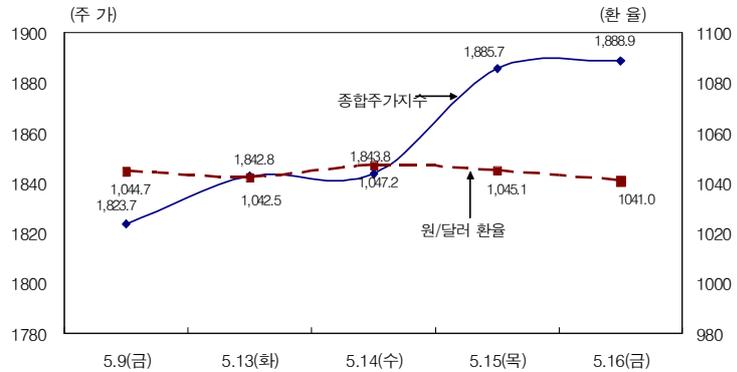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세계 신성장 지역의 부상과 대응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 경제 활용 전략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9~5.16)



차 례

<b>주요 경제 현안</b> .....	1
□ 세계 신성장 지역의 부상과 대응: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 경제 활용 전략 .....	1
<b>주간 경제 동향</b> .....	38
□ 실물 부문 : 경제 고용 창출력 약화 지속 .....	38
□ 금융 부문 : 코스피 지수 및 원/달러 환율 연고치 경신 .....	3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신산업연구실       :    이 부 형 연구 위 원 (3669-4011, lbk@hri.co.kr)  
                           임 상 수 연구 위 원 (3669-4125, happylim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세계 신성장 지역의 부상과 대응

#### 1. 세계 성장 지도를 바꾸고 있는 중동 국가들

세계 경제의 성장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은 고유가에 따르는 오일머니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시키고 있다.

**고유가 행진에 따른 오일머니 확대로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지역 7개 주요국의 오일머니 또한 2001년 1,498억 달러에서 2007년 4,734억 달러로 급증했다. 2007년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7%로 세계 평균 4.9%보다 0.8%p 높았다. **이처럼 풍부한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경제를 급성장시키고 있는 중동 지역은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2. 중동 시장의 새로운 면모

(Oil Road에서 Industry Road로 변화) 그동안 석유산업에 편중된 중동 지역은 에너지 집약형 산업 투자 증대, 두바이 모델의 성공, 석유개발 연관사업의 확장, 산업 인프라 정비 등과 같은 산업화 전략 추진을 통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첫째, 산유국들은 저렴한 석유 에너지와 연료를 활용한 산업인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둘째, 자유경제구역(Free Zone)을 중심으로 한 두바이의 산업 다각화 전략은 서비스업, 관광업, 부동산업 등의 기타 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중동에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석유화학산업, 석유 정제 산업 등 석유개발 연관사업의 확장을 통한 산업 다각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및 기초산업공사, 오만 석유개발, UAE의 GASCO 등을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넷째, 중동 주요국들은 발전, 전력망 등 SOC 확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철도망 확장, 지하철 건설과 같은 운송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Post Oil Money 등장)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확대로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는 전략적 투자와 비축적 투자를 통해 세계 금융 시장, 상품 시장, M&A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UAE 8,93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3,000억 달러, 쿠웨이트 2,500억 달러, 카타르 400억 달러 등 중동 주요 국가의 국부펀드의 합은 1조 4,8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를 이용하여 중동 국가들은 오일 고갈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산업 담당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 미국 채권을 비롯한 각국 정부 채권, 예금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비축적 성격의 투자도 증대시키고 있다.

**(실크로드 허브화 가속) 과거 상품 교역의 거점으로 번영했던 중동 지역이 최근에는 세계 금융, 물류, 관광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2001년 200억 달러에 불과했던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금융 자산 규모는 2005년에는 6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39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2007년 관광객 증가율은 12.9%로 세계 평균 6%보다 무려 7.9%p 높다. 아시아 발 중동 지역의 해상 물동량 역시 2001년 199.5만 TEU에서 2007년에는 437.8만 TEU로 2.2배나 급증했다.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 중동 지역은 역내의 GCC와 역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 통합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관세 동맹이 완료된 GCC는 2010년을 목표로 EU와 같은 화폐 단일 경제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또 EU, 중국, 일본 등은 이미 GCC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했으며, 한국은 2008년 협상을 개시할 예정에 있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 중동 지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중동 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2006년 현재 7,428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61.5% 수준이다. 또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40.2%에 달하는 7조 2,930억 입방미터이다.

**(정치·외교적 중요성 증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풍부한 석유 자원과 오일머니를 지닌 중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본은 정부개발 원조를 활용하여 이 지역 진출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과 같이 중동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 3. 한·중동 교류의 문제점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중동)** 한국은 중동을 수출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오일머니 유입 실적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對 중동 수입 비중은 급증한 반면 對 중동 수출 비중은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동으로부터 유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對 중동 무역 적자 확대)** 2003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對 중동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對 중동 무역수지는 2003년에 178.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6년에는 사상 최대인 46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455.7억 달러에 달했다.

**(교역 구조의 편중)** 한국의 對 중동 교역은 일부 국가와 일부 상품에 편중되어 있다. 중동 13개 국가 중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이란에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 편중되어 있다. 對 중동 수출(수입) 중 주요 수출(수입)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0~80% 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對 중동 수출은 주로 플랜트 수출로 이루어져 있다. 對 중동 수출 가운데 플랜트 수출 비중은 2005년 68.4%에서 2006년 61.8%, 2007년 62.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對 중동 상품 수출 역시 자동차,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 등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39.6%에 달하며, 對 중동 상품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LPG, 석유화학합성원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97.7%에 달한다.

**(인적 교류 미흡)**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출국자 수와 입국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경우 2003년 급감한 이후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대 중동 인적 교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 중동 인적 교류는 2002년까지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많았으나, 2003년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역전되었다.

(에너지 협력 기반 미약) 그동안 외교는 수출 시장 개척에 치우쳤으며, 이 때문에 수입 특화된 중동 지역과의 외교가 미흡했다. 외교는 주로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 때문에 한국 정상이 중동을 방문한 횟수는 2002년 이전에는 2회에 불과하고, 참여 정부에 들어서야 5회 방문으로 늘었을 뿐이다.

(경제 교류 확대 정책 부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EU, ASEAN, 캐나다, 일본, 인도,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 지역의 경우 단지 GCC와 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뿐으로 중동과의 경제 교류 확대 정책이 미흡하다.

#### 4. 예상 기대 효과 및 활용 전략

(예상 기대 효과)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 국가들의 성장력과 오일 머니를 활용하면 제2의 중동 봄에 의한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2007년 228억 달러 규모의 중동 건설 수주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중동 건설 시장의 24.9%에 달한다. 앞으로 한국이 중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동 건설 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30%로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면, 2010년에는 중동 건설 시장 수주 규모는 46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 가계소득 증가에 의한 투자 재원 축적, 수출 증대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중동으로부터의 건설 수주가 모두 국내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 부가가치 유발액은 3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1.3%씩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건설 수주를 수출 효과로 환산할 경우 2008년에서 2010년 전체로는 2007년 대비 약 12.5%, 연평균으로는 약 4.2%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중동으로부터의 건설 수주가 모두 국내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유발 효과는 2010년까지 총 6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으로는 22.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고용 증대에 따르는 가계소득 증가 규모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7.6조 원으로, 3년 간 총 2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는 3년 간 총 5,267억 원의 가계 저축으로 이어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시드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동 국가들의 오일머니 유치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참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연합인데, 2007년 기준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이 30.6조 원의 순매도세를 보인데 반해 이들 국가들의 국내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 (부문별 활용 전략)

중동 시장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심의 진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중동의 오일 머니를 활용하고 소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과 소비시장 개척** : 우선, **중동의 산업 개발 및 소비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동의 플랜트 시장과 SOC 개발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물류자동화 설비 시장 등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국내 휴대용 단말기를 포함한 IT 제품, 고급 섬유 제품 등 경쟁력 있는 소비재의 중동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동 지역의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중동 각국들의 관광 산업 집중 육성 전략과 빠른 경제 성장에 의해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객 유입자 수는 향후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유망 분야로 등장할 것이다. 셋째, **소매 및 유통 부문의 對 중동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Retail International社에 의하면 GCC 지역의 경우 2010년까지 약 1억 3,510만 평방피트의 신규 임대 소매 매장이 건설될 정도로 중동 지역의 소매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넷째, **건강·의료 산업의 對 중동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동 지역의 건강·의료 시장 규모는 이미 1,000억 달러 선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동 각국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향후 이 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 간병 전문 인력 등 고령자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된 인재 뿐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시장 또한 큰 기회 요인으로 여겨진다.

**오일머니 활용** : 다음으로, **중동의 오일 머니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가칭 ‘한·중동 투자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중동 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특히 한국 금융기관의 중동 진출을 통해 오일 머니를 적극 유치·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천연자원개발** : 마지막으로, **패키지형 자원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 등에 뒤떨어진 대 중동 외교를 감안할 때 자원개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나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 등과 연계된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플랜트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자원 외교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 신성장 지역의 부상과 대응**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 경제 활용 전략 -

성장 지도를 바꾸고 있는 중동 국가들	
오일머니 확대, 경제 급성장	- 중동지역의 2007년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1.9%p 높은 수준임 - 중동지역의 오일머니는 2001년 1,498억 달러에서 2007년 4,734억 달러로 급증함

실크로드의 중요성 증대	
Oil Road에서 Industry Road로 변화	다양한 산업화 추진
국부펀드의 증가	세계 금융·산업·M&A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
실크로드의 허브화가 가속	금융, 물류, 관광 허브로 확대
경제 통합 확산	GCC 중심의 역내 통합과 자유무역협정 가속
에너지 자원의 보고	원유: 전세계 매장량의 61.5%, 천연가스 : 40.2%
정치·외교적 중요성을 부각	풍부한 자원과 오일머니의 존재

한·중동 교류의 문제점	
한국의 중동 미활용	수출 및 중동 자본 유치 부진
무역수지 적자 규모 확대	원자재 급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율 급증이 원인
교역 구조 편중	일부 국가와 일부 상품에 편중
중동 인적 교류 미흡	출국자 수의 급감
에너지 협력 기반 미약	수출 확대가 아닌 에너지 협력을 위한 외교가 미흡
경제 교류 확대 정책 부재	한국은 GCC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준비 단계임

예상 기대 효과 및 활용 전략	
기대 성장 효과	- 2008~2010년까지 매년 1.3% 성장 효과 · 가정 : 중동지역 건설 수주 점유율이 2007년 24.9%에서 2010년 30%로 확대 · 수출 기여 : 3년간 2007년 전체 수출의 12.5%, 연평균 4.2% · 고용창출효과 : 3년간 67.5만 명, 연평균 22.5만 명 · 가계소득증대 효과 : 3년간 총 22.9조 원, 연평균 7.6조 원 · 자본시장 안정화 효과 : 2007년 1.7조 원의 국내 주식 순매수
진출 방안	- 중동의 산업 개발과 소비시장 개척 · 플랜트 시장 및 SOC 개발 분야 전극 진출 · IT나 고급 섬유 등 소비재 산업 및 관광·레저, 소매·유통 등의 시장 개척 - 중동의 오일머니 적극 활용 · 가칭 '한·중동 투자교류프로그램' 마련 · 금융기관 진출 촉진 전략 마련 - 패키지형 자원외교 추진 · 자원개발 시 석유화학인프라 등과의 연계 전략 추진 · 자원개발과 SOC와의 패키지화 추진

## 1. 성장 지도를 바꾸고 있는 중동 국가들

○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중동)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았으며,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걸프지역 국가들의 성장세가 지중해연안 국가들보다 두드러짐

-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유가 급등으로 오일머니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 1995년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4.5%로 세계 평균 3.3%보다 1.2%p 높았음
  - 2005년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6.2%를 기록함에 따라 세계 평균 4.4%보다 무려 1.8%p가 높았음
  - 2008년 경제 성장률 역시 중동 지역이 6%인데 반해 세계 평균은 3.7%로 전망됨
  - 이처럼 중동지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오일머니의 확대에 의한 것이며, 2007년 중동지역의 오일머니는 4,734억 달러로 2001년의 1,498억 달러에 비해 무려 3.2배가 증가함

### < 중동의 오일머니 추이 >

(단위 : 억 달러)

Country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 란	210	185	234	323	480	546	573
이라크	154	127	87	184	238	318	378
쿠웨이트	150	150	191	263	404	500	543
리비아	109	103	128	178	279	356	406
카타르	70	69	85	125	195	244	266
사우디아라비아	624	578	769	1,036	1,569	1,828	1,938
UAE	181	178	227	297	443	575	630
계	1,498	1,390	1,721	2,406	3,607	4,367	4,734

자료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 : oil export revenue를 오일머니로 산정함.

- 2000년 이전만 해도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주도했으나, 이후에도 걸프지역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1995년 걸프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3.4%로 지중해연안의 6.3%에 비해 2.9%p 낮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00년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지중해연안의 3.9%에 비해 3%p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후 경제성장률은 걸프지역이 평균 6%대를 기록한 반면 지중해연안은 4%대를 기록함
  - 특히 최근 들어 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중 카타르와 UAE의 경제 성장률이 급상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풍부해진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경제를 급성장시키고 있는 중동 지역은 21세기 새로이 뜨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동 지역별 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Country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0.2	4.9	6.1	4.3	4.1	4.3	
	바레인	3.9	5.2	7.8	7.6	6.8	6.5	
	UAE	6.2	12.4	8.2	9.4	7.7	6.6	
	쿠웨이트	1.4	4.7	10	5	3.5	4.8	
	오만	4.8	5.5	5.8	5.9	6	6.3	
	카타르	3.6	10.9	9.2	10.3	14.2	14.1	
	GCC 평균		3.4	7.3	7.9	7.1	7.1	7.1
	기타 GCC	이란	2.7	5.1	4.4	4.9	6	6
		예멘	5.7	6.2	4.6	4	3.6	4.3
	걸프지역 평균		3.6	6.9	7.0	6.4	6.5	6.6
지중해 연안	터키	7.2	7.4	7.4	6.1	5	5.3	
	시리아	5.4	2.3	3.3	4.4	3.9	3.7	
	요르단	6.2	4.3	7.1	6.3	6	6	
	레바논	6.5	1.7	1	0	2	3.5	
	지중해연안 평균		6.3	3.9	4.7	4.2	4.2	4.6
중동지역 평균		4.5	5.9	6.2	5.7	5.7	6.0	
세계 평균		3.3	4.7	4.4	5.0	4.9	3.7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07.

## 2. 중동시장의 새로운 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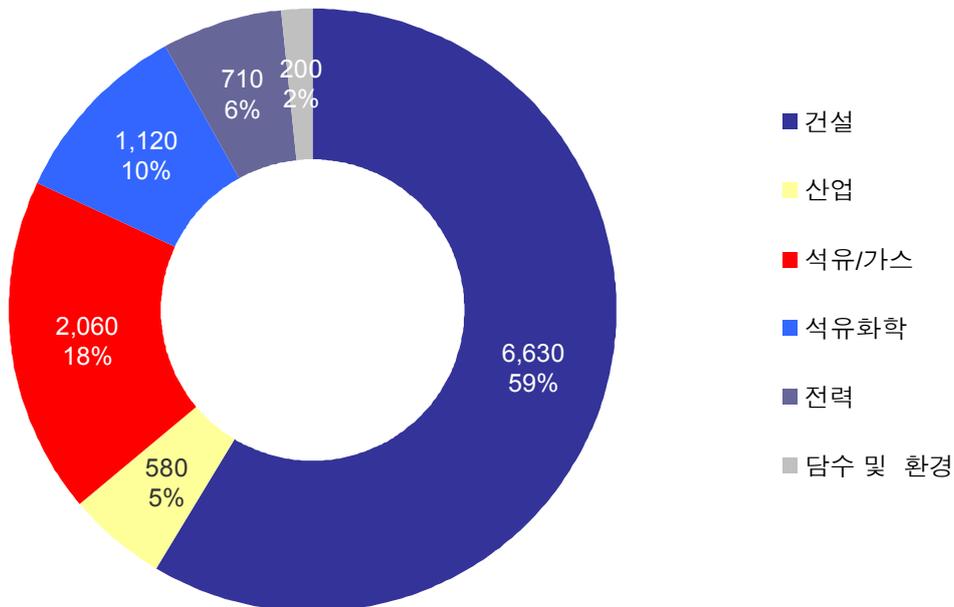
### 2-1. Oil Road에서 Industry Road로 변화

○ (변모하고 있는 중동의 산업) 과거 석유개발을 중심으로 한 오일산업에 크게 의존하던 중동 경제가 에너지 집약형 산업 투자 증대, 두바이 모델의 성공, 석유개발 연관사업의 확장, 산업 인프라 정비 등 산업화 전략 추진을 통해 크게 변모하고 있음

- 다각화되고 있는 투자 : 2006년 기준 GCC국가들의 부문별 투자 규모를 보면 석유 및 가스에 대한 투자는 2,06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16%에 지나지 않은 반면, 건설 투자가 6,630억 달러로 59%, 석유화학이 1,120억 달러로 10%, 산업이 580억 달러로 5%를 차지하는 등 투자 분야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

< GCC 국가들의 부문별 투자 규모 및 비중(2006년) >

(단위 : 억 달러)



자료 : Qatar Financial Centre, *Annual Report 2006*.

○ (에너지 집약형 산업 투자 증대)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산유국들은 짙 에너지를 활용할 뿐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인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 알루미늄 : 2006년 이후 알루미늄 제련 분야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생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2007년 현재 5% 정도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2010년에 10%, 2015년에는 18%까지 상승시킬 계획임<sup>1)</sup>
- UAE : 두바이 알루미늄社(Dubal; Dubai Aluminium)는 Mubadala(아부다비국영투자회사)社와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120만 톤의 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두바이 현지의 제련소 또한 확장할 계획임. 더욱이 아부다비에서는 호주 광산회사인 Rio Tinto社가 7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임
- 카타르 : 카타르석유회사와 노르웨이 Norsk Hydro社는 50 대 50 비율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58만 5천 톤의 알루미늄을 제조할 수 있는 제련소를 건설할 예정임
- 오만 : Sohar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소의 경우, 캐나다의 알루미늄 제조사인 Alcan社가 20%의 지분을 투자하였으며, 아랍 에미리트연합의 정부 또한 지분투자를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산회사인 Maaden社는 자국 북부의 Al Zabirah의 보크사이트 채굴 뿐 아니라 Ras al Zor에 62만 3천 톤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임
- 철강 : 사우디아라비아의 Hadeed社, 카타르의 Qasco社, 오만의 Shadeed社 등 중동의 주요 철강 기업들이 생산량 증산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걸프투자공사(Gulf Investment Corporation)<sup>2)</sup> 또한 철강 산업에 투자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철강 기업인 Hadeed社는 2015년까지 철강생산량을 1천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임
- 걸프투자공사는 철강 및 철광석 생산업자인 걸프산업투자회사(Gulf Industrial Investment Company)를 매수하였으며, 사업 파트너인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업자인 CVRD社의 지분 50%를 인수함

1) 본 절의 이하 내용은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湾岸地域へのオイルダラー還流実体」, 2/3, 2007年 및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GCC諸国の經濟—經濟多様化と石油價值連鎖の拡大」, 2/3, 2008年 참조.

2) 1983년 GCC 6개국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투자회사.

- **비료** : 원료인 가스가 풍부하고 세계 최대의 인광석 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의 소비지인 아시아시장이 인접해 있어 비료 산업은 중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 **사우디아라비아** : 추정 매장량 15억 톤으로 세계 최대 인광산의 하나인 'Al Jalamid광산채광프로젝트'를 통해 각종 화학제품, 세제, 사료, 인산비료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 3위의 인산비료 생산국으로의 도약을 꾀함
  
- **(두바이 모델의 성공) 자유경제지역(Free Zone)을 중심으로 한 두바이의 산업 다각화 전략은 서비스업, 관광업, 부동산 등의 기타 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중동에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석유 산업 비중 감소** : 두바이 석유 산업 분야의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10%에서 2006년 3%로 하락하면서 산업의 다각화 달성<sup>3)</sup>
  - 2006년 기준 두바이의 부문별 GDP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 도소매 및 수리 서비스, 운송·물류·통신이 각각 16%, 22%, 13%로 51%를 차지
  
- **Free Zone 전략** : 두바이는 8개의 Free Zone과 12개의 유사 시설 설립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물론 제조 및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 관광업, 부동산 등 기타 산업 또한 동반 발전하고 있음
  - **비석유분야 외국 거래 증가** : 세계적 향만 운영회사인 DP World社에 따르면 두바이의 Free Zone을 통한 비석유분야의 외국 거래는 2006년 5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는 2005년 대비 8.9% 증가한 수준임
  - 특히 Jebel Ali Free Zone의 경우 수출 금액이 370억 달러에 달함
  
- **(석유개발 연관사업의 확장) 석유화학산업, 석유 정제 산업 등 석유개발 연관사업의 확장을 통해 산업 다각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사우디아라비아 기초산업 공사(SABIC)가 석유화학 부문에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있음

3) 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he Economic Bulletin*, Vol. 4, Issue. 36, June 2007.

- 사우디 아람코 : 프랑스의 토탈社와 미국의 코노코필립스와 공동으로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4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중질유 완전개질제유소(full conversion refineries, 중질유를 사용 가능한 원유로 전환하는 장치)를 건설할 계획
- 사우디아라비아 기초산업공사(SABIC) : GE Plastics를 116억 달러에, 영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Huntsman Petrochemicals를 7억 달러에 매수하였으며, 중국에서는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안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기타 : 오만석유개발(Petroleum Development Oman), UAE연합의 GASCO(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등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음

< 중동지역의 주요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 >

프로젝트 명	발주사	최종 추정 비용 (억 달러)
Rabigh Integrated Refinery	PetroRabigh(사우디아라비아)	9.9
Pearl GTL	Royal Dutch, Shell	12.0
AFK Development	Saudi Aramco(사우디아라비아)	5.0
OGD-3/AGD-2	Gasco, ADOC, Takreer	4.5
Flowlines Replacement	KOC(Kuwait Oil Company)	1.2
Qarn Alam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1.7
Umm Shaif Gas Injection	Adma-Op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UAE 연합)	1.7

자료 :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湾岸地域へのオイル달러還流實體」, 2/3, 2007年.

○ (인프라의 정비) 발전 및 담수, 운송, 환경 등 인프라 투자가 증대하고 있음

- 발전 및 담수 :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 UAE 등 중동 주요국들의 발전 및 담수 프로젝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GCC의 경우 전력망 연계를 통해 역내 전력난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계획

- **운송** : 사우디아라비아는 철도망 확장, UAE의 두바이는 지하철 건설 등 운송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GCC 전체로는 역내 자동차 지향 교통을 위한 도로 및 교량을 확장할 계획
- **환경** : UAE의 두바이는 최근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 감소 전략이 실패하자, 이를 대신해 쓰레기 소각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

< 중동 지역의 주요 인프라 투자 계획 >

구분	국가	사업 내용	총 투자 비용
발전 및 담수	사우디아라비아	- 라스 알주르(Ras Al-Zour) 민자 발전 및 담수 프로젝트 · 850~1,100MW의 발전소 · 2.2억 갤런/일 생산 담수공장 건설	30억 달러
	요르단	- 알카트라나(Al-Qatrania) 민자 발전소 - 알마카나(Almanakher) 복합화력발전소	미정 3억 달러
	카타르	- 라스라판C 민자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 2,600MW 발전소 건설 · 4천만 갤런/일 생산 담수공장	25억 달러
	UAE	- 슈웨이hat(Shuweihat) 2단계 민자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 1,600MW 발전소 건설 · 1억 갤런/일 생산 담수공장 건설	20억 달러
	쿠웨이트	- 슈웨이크 담수 프로젝트 · 14만 톤/일	3.2억 달러
	GCC	- 전력망 연계 · 1단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연결 · 2단계: UAE연합, 오만 연결	1단계: 60억 달러
소각로	아랍 에미레이트연합	- 중동 최초의 쓰레기 소각로 프로젝트	54억 달러
운송	사우디아라비아	- 철도망 확장(젯다, 리야드, 단만 등 연결)	신규 총 1,070km 간선 총 444km
	아랍 에미레이트연합	- 두바이 지하철 건설	1단계: 39억 달러 (2009년까지)
	GCC	- 역내 자동차지향교통을 위한 도로 및 교량 확장	미정

자료 : Saudi Railway Organization; 日本政策投資銀行 「躍進する中東湾岸經濟とその投資環境—日本企業の中東(ドバイ/GCC諸國)投資の課題と將來性」 2007年 6月;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湾岸地域へのオイル달러—還流實體」 2/3, 2007年;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GCC諸國の經濟—經濟多様化と石油価値連鎖の擴大」 2/3, 2008年 및 각종 보도 자료 참조.

2-2. Post Oil Money 등장

○ (국부 펀드의 등장) 최근 주요 중동국가들에서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오일 머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국부 펀드가 세계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국부 펀드 현황 : UAE연합 총 3개(자산 규모 8,93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1개(3,000억 달러), 쿠웨이트 1개(2,500억 달러), 카타르 1개(400억 달러)로 총 6개의 국부 펀드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자본금 규모는 1조 4,830억 달러로 추정

< 중동 지역 국부 펀드 현황 >

구분	자산규모	재원	자산 배분	통화 배분	
UAE	아부다비투자청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1976년)	8,750 억 달러	원유	· 주식: 50-60% · 채권: 20-25% · 부동산: 5-8% · Alternative: 5-10% · 기타: 5-8%	· 달러: 50% · 유로+파운드+엔: 36% · 개도국통화: 14%
	무바다라개발공사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2002년)	120 억 달러	원유	· 주식: 60% · 채권: 20% · Alternative: 20%	· 달러: 40% · 유로: 50% · 개도국통화: 10%
	두바이 인터내셔널 캐피탈 (Dubai International Capital, 2004년)	60 억 달러	정부출자 등	· 주식: 50% · 채권+예금: 10% · Alternative+ 부동산 40%	· 달러: 35% · 유로+파운드: 50% · 아시아통화: 15%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Saudi Arabia Monetary Agency, 1952년)	3,000 억 달러	석유 판매 잉여 자금 등	· 해외증권: 61% · 국내투자: 25% · 외화준비: 6% · 해외예금: 4%	· 달러: 40% · 유로: 50% · 개도국통화: 10%
쿠웨이트	쿠웨이트 투자청 (Kuwait Investment Authority, 1953년)	2,500 억 달러	원유	· 주식: 60% · 채권: 25% · Alternative: 15%	· 달러: 40% · 유로: 50% · 개도국통화: 10%
카타르	카타르 투자청 (Qatar Investment Authority, 2005년)	400 억 달러	천연가스, 원유	· 주식: 60% · 채권: 20% · Alternative: 20%	· 달러: 40% · 유로: 50% · 개도국통화: 10%

자료 : 週間ダイヤモンド, 2008년 3월 15일.

주 : Alternative는 금, 원유 등에 대한 상품투자, 선물이나 옵션 등의 금융파생상품투자, 부동산 투자, 헤지펀드나 재생펀드 등에 대한 투자 등을 말함.

○ (국부 펀드의 영향) 중동 지역의 국부 펀드는 전략적 투자와 備蓄적 투자를 통해 세계 금융 시장, 상품 시장, M&A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sup>4)</sup>

- 전략적 투자의 증대 : 아부다비투자청, 무바다라개발공사, 두바이인터내셔널 캐피탈 등 중동 지역의 주요 국부 펀드들의 경우 오일 고갈 시 자국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음
- 備蓄적 투자 강화 : 한편 중동의 주요 6개 국부 펀드들의 경우 미국 채권을 비롯한 각국 정부 채권, 예금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적 성격이 강한 투자 또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에까지 이룸

< 중동 지역 국부 펀드의 주요 전략적 투자 현황 >

구분	주요 전략적 투자 내용
아부다비 투자청	· 2007년 11월 미국 시티그룹에 75억 달러 출자
무바다라 개발공사	· 2004년 네덜란드 리스플랜에 25% 출자(독일 폭스바겐 등과 20억 유로) · 2005년 이탈리아 페라리 자동차에 5% 출자, 1억 1,400 유로 · 2005년 네덜란드 스파이카(고급 자동차)에 17% 출자, 7,500만 유로 · 2007년 미국 투자회사 칼라일에 7.5% 지분 투자, 13억 5,000만 달러 · 2007년 미국 반도체 AMD社에 8.1% 지분 투자, 6억 2,200만 달러
두바이 인터내셔널 캐피탈	· 2007년 5월 영국 HSBC 주식 상당 수 취득 · 2007년 7월 유럽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EADS에 3% 출자(카타르 투자청 공동) · 2007년 11월 추정 15억 달러 규모의 소니 주식 취득
쿠웨이트 투자청	· 2008년 1월 시티그룹에 30억 달러 출자
카타르 투자청	· 2007년 7월 영국의 슈퍼마켓 세인즈베리에 25% 출자 · 2007년 9월 유럽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EADS에 3% 출자(두바이 인터내셔널 캐피탈 공동) · 2007년 7월 LSE 주식의 20%, 북미 증권거래통합체인 OMX 주식 10% 취득 · 2008년 2월 크레디 스위스 주식 취득 발표

자료 : 新興証券 「國富ファンド(SWF)脅威か-投資家としての中東中國ファンド」 2008年 1月 23日; 週間ダイヤモンド, 2008年 3月 15日; 吉田健一郎, 「中東諸國のオイルマネーの行方-主要産油國の經濟政策と原油收入の使途」 みずほ總合研究所, 2007年 11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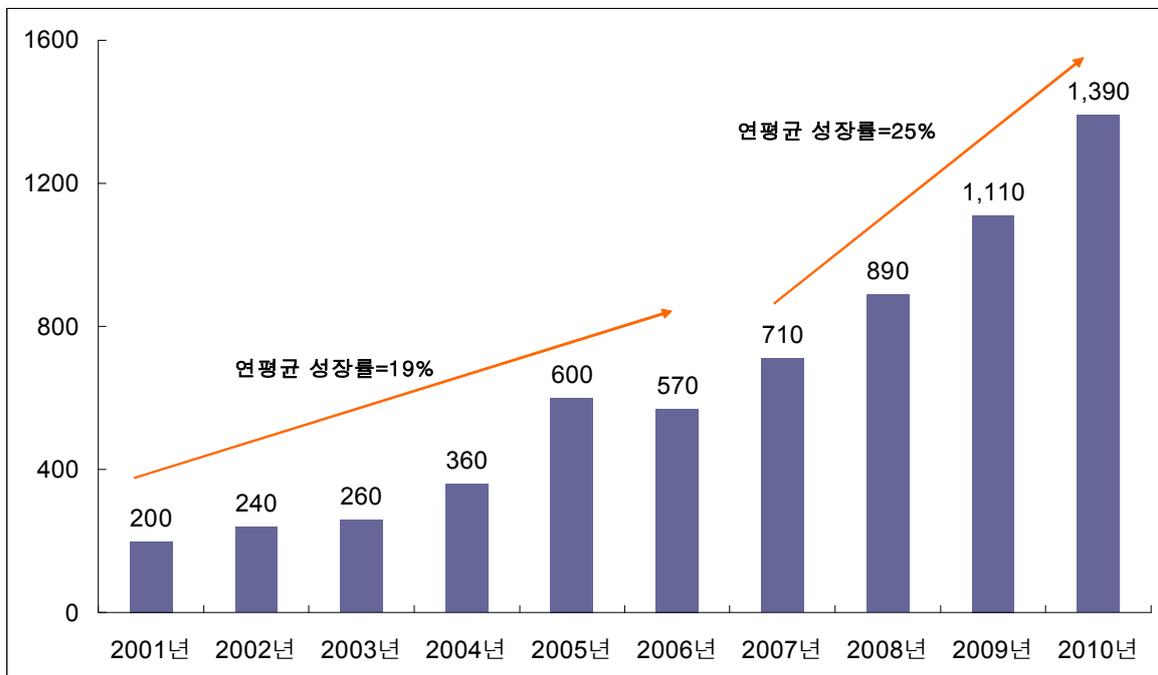
4) 중동지역 국부 펀드들의 전략적 투자와 비축적 투자에 대한 논의는 吉田健一郎, 「中東諸國のオイルマネーの行方-主要産油國の經濟政策と原油收入の使途」 みずほ總合研究所, 2007年 11月 참조.

2-3. 실�크로드 허브화 가속

- (허브화가 가속되는 중동) 과거 상품 교역의 거점으로 변영했던 중동지역이 최근에는 세계 금융, 물류, 관광 허브로 거듭나고 있음
- (세계 금융 허브화 진전) 최근 관리 자산 규모의 급증을 배경으로 한 금융 센터의 건설을 통해 세계의 금융 회사들이 몰려들고 있는 등 세계 금융의 허브화가 진전되고 있음
- 관리 자산 규모의 급증 : 2001년 200억 달러에 불과했던 GCC 국가들이 관리하는 금융 자산 규모가 2005년에는 600억 달러로 3배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390억 달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GCC국가들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 추이 >

(단위: 억 달러)



자료 : Qatar Financial Centre, Annual Report 2006.

주 : 2006년은 2/4분기 말 기준이며, 2007년부터는 추정치.

- **세계 금융 허브화 진전** : 2005년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가 문을 열면서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2007년에는 바레인금융허브(Bahrain Financial Harbour)가 완공되어 중동지역의 세계 금융 허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두바이국제금융센터** : 2008년에 완성예정인 센터 내 두바이국제금융증권거래소가 있으며, 이미 Standard Chartered Bank, Credit Suisse, Deutsche Bank,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국제 금융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금융 허브로써 도약하고 있음
- **바레인금융허브** : 2009년에 완성예정인 100% 외자 승인, 소득세 및 수익세 면세 등의 우대정책을 통해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여 중동 지역의 금융 거점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음
- **카타르금융센터** : 2005년에 착공하였으며 외국인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등으로 카타르 국내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AXA Investment, Barclays Bank, Morgan Stanley, Credit Suisse, Deutsche Bank, PwC 등 국제 금융 기관이 입주해 있는 등 국제 금융 허브로써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중동지역 금융센터 현황과 특징 >

구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바레인금융허브 (Bahrain Financial Harbour)	카타르금융센터 (Qatar Financial Centre)
완성 년도	2008년 완성 예정	2009년 완성 예정	2005년 착공
소재지	두바이	바레인	카타르
특징	· 센터 내 두바이국제금융 증권거래소가 있음	· 국제금융기관유치 및 중동 지역의 금융거점 목표	· 외국금융기관 유치, 카타르 국내금융 중심지 목표
주요 진출기업	Standard Chartered Bank, Credit Suisse, Deutsche Bank,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Gulf Finance House, Solidarity, Khaleeji Commercial Bank 등	AXA Investment, Barclays Bank, Morgan Stanley, Credit Suisse, Deutsche Bank, PwC 등
우대정책	· 100%외자 승인 · 소득세, 수익세 면세 · 2중 과세 회피 가능 · 자본, 이익의 본국 송금 자유 · 달러 유통 가능 등	· 100% 외자 승인 · 소득세, 수익세 면세 ·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설, 정보데이터보안 정비 등	· 100% 외자 승인 · 자본, 이익의 본국 송금 자유 · 통화 규제 없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규칙 등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躍進する中東湾岸經濟とその投資環境－日本企業の中東(ドバイ/GCC 諸國)投資の課題と將來性」 2007年 6月.

○ (관광산업의 진흥) 최근 중동지역의 관광산업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 **관광객 유입 가속** : 중동 지역의 관광객 유입 증가율은 2005년 6.4%로 세계 전체 5.4%보다 1%p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6년에는 무려 13%를 기록하여 세계와는 7.7%p의 격차를 보이는 등 관광객 유입이 가속되고 있음
- **2007년에도 관광객 유입 급증** : 2007년 예측치 기준 중동 지역의 관광객 유입 증가율은 12.9%로 2006년 수준과 거의 유사하며, 세계와는 2배 이상의 성장률 격차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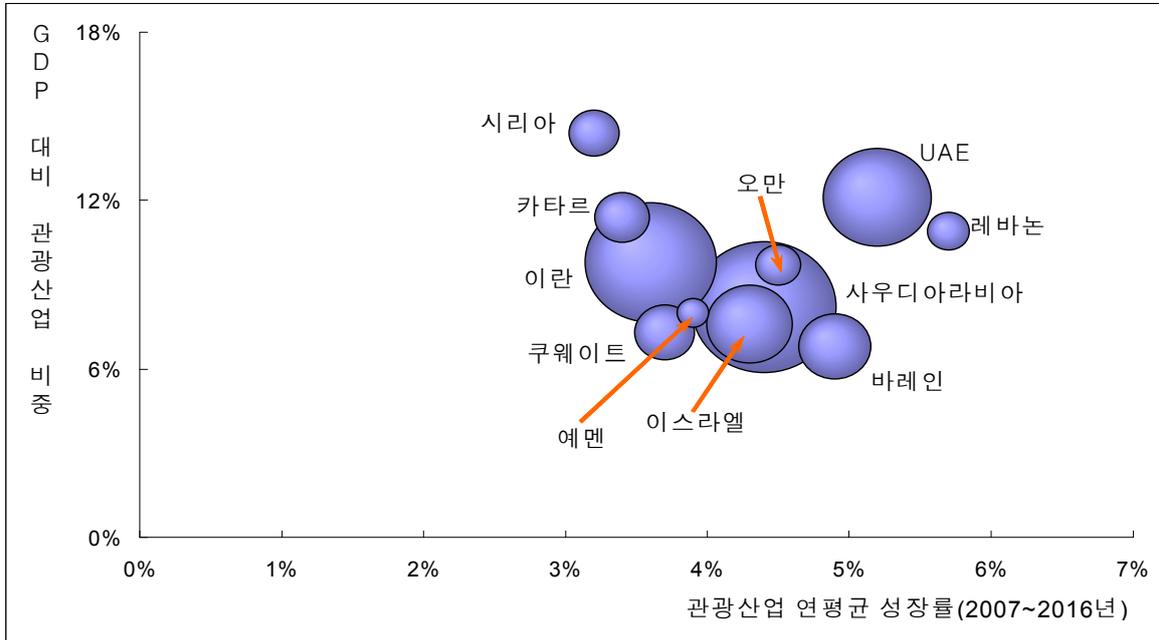
< 연도별 중동 지역 관광객 유입 증가율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예측치)
바레인	11.4	15.5	5.3
이란	10.4	5.8	6.1
이스라엘	26.4	-4.5	4.2
요르단	4.7	8.0	4.7
쿠웨이트	4.0	6.1	3.0
레바논	-10.8	-6.8	-10.5
오만	7.9	7.3	7.3
카타르	24.7	5.4	15.0
사우디아라비아	6.5	21.4	13.0
시리아	11.0	31.3	15.0
UAE	15.5	5.7	13.9
예멘	22.6	13.4	6.9
평균	6.4	13.0	12.9
세계	5.4	5.3	6.0

자료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AIG Travel Guard 25/02/2008, 2008.

- **높은 성장세 기대** : 2006년 기준 중동 지역의 관광 산업 평균 성장률은 4.3%이며, 2007~2016년 사이 중동 지역 연평균 9.7% 성장세가 전망됨

< 중동 지역의 관광산업 성장 추이 >



자료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06 *Climbing to New Heights*, 2007.

주 :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은 2006년 기준이며, 원의 크기는 상대적 시장 규모를 나타냄.

-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 노력 강화** : UAE연합, 바레인 등의 중동 국가들의 경우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sup>5)</sup>

· **UAE연합** : 아부다비는 2015년에 관광객 3백만 명 유치를 목표로 컨벤션 센터나 국제전시장을 개발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2010년까지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450개 이상의 매장이 들어선 Mall of the Emirates를 건설한 등 관광 인프라 건설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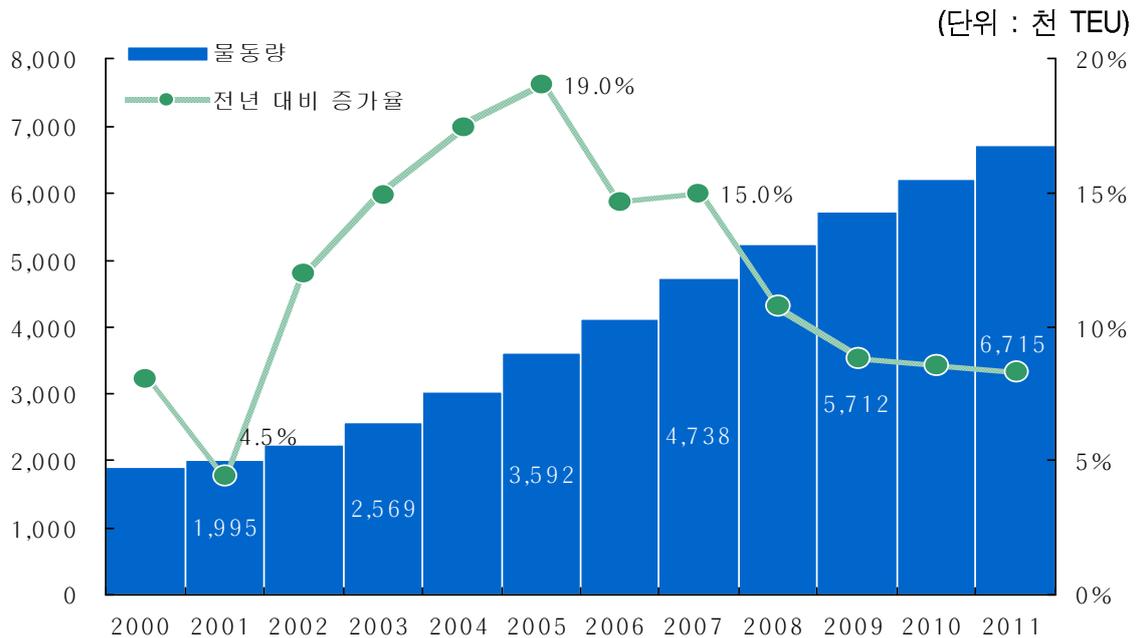
· **바레인** : 2010년대 중반에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GDP의 1/3수준까지 높이려 사막지대에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실내스키장(Iceberg Tower) 건설, 안공 리조트 섬 개발, 호텔체인 유치 등에 힘쓰고 있음

○ **(물류 투자 강화) 아시아발 중동 지역의 해상 물동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음**

5) 日本政策投資銀行「躍進する中東湾岸経済とその投資環境—日本企業の中東(ドバイ/GCC諸国)投資の課題と将来性」2007年 6月.

- 對 中東 물류 지속 성장 : 아시아 지역의 대 중동 해상 물동량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극동 아시아 발 대 중동 해상물동량은 2001년 199.5만 TEU에서 2007년에는 437.8만 TEU로 약 2.4배 증가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5년(19%)까지 급상승했으며,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2008년까지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물류 투자 활성화 :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항만을 확장하거나 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킹압둘아지즈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150만 TEU에서 350만 TEU로 확대시키고, 제다이슬람 항만을 확장할 예정임
  - UAE : 제벨 알리항의 항만 처리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극동 아시아와 중동 지역 간의 해상물동량 추이 >



자료 : Drewry Shipping Consultant, *Annual Container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01~2007.

## 2-4.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

○ (경제통합 확산) 중동 지역은 역내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 만협력회의)와 역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 통합을 확산시키고 있음

- GCC 역내 경제통합<sup>6)</sup> : 이미 관세 동맹이 완료된 GCC는 2010년을 목표로 EU와 같은 화폐 단일 경제공동체를 만들 계획임
  - GCC는 1981년 이란혁명,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란·이라크 전쟁과 같은 인근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협력체로 결성됨
  - 1983년에는 회원국 간 역내 관세 철폐, 여행제한 해제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단계로 발전함
  - 2005년에는 역외 국가에게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완료함
  - 2010년까지 EU와 같은 단일 통화 경제공동체를 만들 계획임
- GCC·EU의 자유무역협정 : 1990년 시작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8년 내 체결될 예정임
- GCC·중국의 자유무역협정 : 2005년 4월, 6월, 9월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1, 2, 3차 협상이 급진전되었으나,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
- GCC·일본의 자유무역협정 :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2005년 GCC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6년 4월에는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해 합의를 했고 2007년 1월 2차 협상을 하였음
- GCC·한국의 자유무역협정 : 이미 2008년 1월 한국에서 한·GCC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으며, 2008년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6) 박복영·박철영,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중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7월.

2-5. 에너지 자원의 보고

○ (에너지 자원의 보고 중동)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함

-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동 13개 국가 중 주요 원유 매장 지역인 9개국의 원유 매장량은 2006년 현재 7,428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61.5%를 차지함

< 원유 매장량 추이 >

(단위 : 십억 배럴)

구분	1986년	1996년	2005년	2006년
Iran	92.9 (10.6)	92.6 (8.8)	137.5 (11.4)	137.5 (11.4)
Iraq	72.0 (8.2)	112.0 (10.7)	115.0 (9.5)	115.0 (9.5)
Kuwait	94.5 (10.8)	96.5 (9.2)	101.5 (8.4)	101.5 (8.4)
Oman	4.0 (0.5)	5.3 (0.5)	5.6 (0.5)	5.6 (0.5)
Qatar	4.5 (0.5)	3.7 (0.4)	15.2 (1.3)	15.2 (1.3)
Saudi Arabia	169.7 (19.3)	261.4 (24.9)	264.2 (21.8)	264.3 (21.9)
Syria	1.6 (0.2)	2.5 (0.2)	3.0 (0.2)	3.0 (0.2)
UAE	97.2 (11.1)	97.8 (9.3)	97.8 (8.1)	97.8 (8.1)
Yemen	0.1 (0.0)	0.2 (0.0)	2.9 (0.2)	2.9 (0.2)
소계	536.5 (61.1)	672.0 (64.1)	742.7 (61.4)	742.8 (61.5)
World	3,618.1	3,602.7	3,575.6	3,701.3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주 : 괄호는 對 세계 비중을 나타냄.

-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동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중동 13개 국가 중 주요 천연가스 매장 지역인 9개국의 매장량은 2006년 현재 7조 2,930억 입방미터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40.2% 수준임

< 천연가스 매장량 추이 >

(단위 : 억 입방미터)

구분	1986년	1996년	2005년	2006년
Bahrain	200 (0.2)	140 (0.1)	90 (0.0)	90 (0.0)
Iran	13,960 (13.0)	23,000 (15.6)	27,580 (15.3)	28,130 (15.5)
Iraq	820 (0.8)	3,360 (2.3)	3,170 (1.8)	3,170 (1.7)
Kuwait	1,170 (1.1)	1,490 (1.0)	1,570 (0.9)	1,780 (1.0)
Oman	230 (213.6)	620 (419.2)	1,000 (554.9)	980 (540.1)
Qatar	4,440 (4.1)	8,500 (5.7)	25,360 (14.1)	25,360 (14.0)
Saudi Arabia	4,020 (3.7)	5,690 (3.8)	6,820 (3.8)	7,070 (3.9)
Syria	140 (0.1)	240 (0.2)	300 (0.2)	290 (0.2)
UAE	5,410 (5.0)	5,780 (3.9)	6,070 (3.4)	6,060 (3.3)
소계	30,390 (28.2)	48,820 (33.0)	71,960 (39.9)	72,930 (40.2)
World	107,670	147,890	180,200	181,460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주 : 괄호는 對 세계 비중을 나타냄.

2-6. 정치·외교적 중요성 증대

○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동) 원자재 가격이 급등인 시점에서 풍부한 자원과 오일머니는 중동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일본의 중동 관계 강화 : 이미 일본은 중동지역의 경제 및 정치 안정을 위해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했으며, 일본 및 중동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잦음
- 중국의 중동 관계 강화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중동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 역시 최근 들어 자원 외교를 내세우고 있어, 한국에게 중동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3. 한·중동 교류의 문제점

#### 3-1.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중동

○ (상호 보완적인 교역) 중동은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한국은 수입된 원자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중동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한 후, 다시 중동 국가들에게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수출함
  - 對 중동 수입 중 원자재의 비중은 99.5% 이상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대 중동 수출 중 원자재를 제외한 비원자재 제품의 비중은 1995년을 제외하고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원자재 수출 역시 수입된 원유를 바탕으로 가공한 석유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중동은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수입된 원자재를 바탕으로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 성질별 對 중동 수출 및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
1995년	2,040.3 (48.5%)	906.3 (21.5%)	1,255.0 (29.8%)	5.0 (0.1%)	11,261.3 (99.5%)	13.5 (0.1%)	45.1 (0.4%)	0.2 (0.0%)
2000년	2,443.1 (34.6%)	2,456.6 (34.8%)	2,150.6 (30.5%)	8.2 (0.1%)	24,859.7 (99.7%)	11.5 (0.0%)	53.9 (0.2%)	0.0 (0.0%)
2005년	3,785.2 (30.8%)	4,417.6 (35.9%)	4,057.1 (33.0%)	34.3 (0.3%)	46,225.4 (99.5%)	104.6 (0.2%)	109.6 (0.2%)	0.1 (0.0%)
2006년	5,069.6 (35.0%)	5,022.7 (34.6%)	4,360.2 (30.1%)	52.0 (0.4%)	60,541.8 (99.6%)	129.5 (0.2%)	139.4 (0.2%)	0.2 (0.0%)
2007년	6,763.1 (34.2%)	8,168.9 (41.3%)	4,777.5 (24.2%)	57.5 (0.3%)	65,114.2 (99.6%)	73.3 (0.1%)	153.2 (0.2%)	20.9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괄호는 점유율을 나타냄.

○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중동) 한국의 대중동 수입 비중은 급증한 반면, 한국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동은 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대중동 수입 비중의 급증 :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동의 비중은 1995년 8.4%에서 2000년 15.5%로 급증하였으며, 2007년에는 18.3%에 이룸
- 미약한 대중동 수출 비중 증가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동의 비중은 1995년 3.4%에서 2000년 4.1%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5.3%에 불과하여 수출입 비중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한국의 대중동 수출입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대중동 수출	대중동 수입	총수출	총수입	대중동 수출 비중	대중동 수입 비중
1995년	4,206.6	11,320.1	125,058.0	135,118.9	3.4%	8.4%
2000년	7,058.5	24,925.1	172,267.5	160,481.0	4.1%	15.5%
2005년	12,294.2	46,439.7	284,418.7	261,238.3	4.3%	17.8%
2006년	14,504.5	60,810.9	325,464.8	309,382.6	4.5%	19.7%
2007년	19,767.0	65,361.6	371,489.1	356,845.7	5.3%	18.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동 오일 머니 유입 실적 미미) 한국으로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동으로부터의 유입은 미미한 수준

-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7년 현재 미국 22.2%, 일본 9.4%, 네덜란드 18.8%로 가장 높으며, 중동이 속해 있는 기타지역은 6.1%에 불과함
- 특히, 1962~2007년까지 누적기준으로 보면 기타는 2.3%에 불과함

<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타	전체
2007년	2,340(22.2%)	990(9.4%)	1,979(18.8%)	646(6.1%)	10,509
1962~2007년	38,999(28.4%)	20,526(15.0%)	17,757(12.9%)	3,216(2.3%)	137,288

자료 :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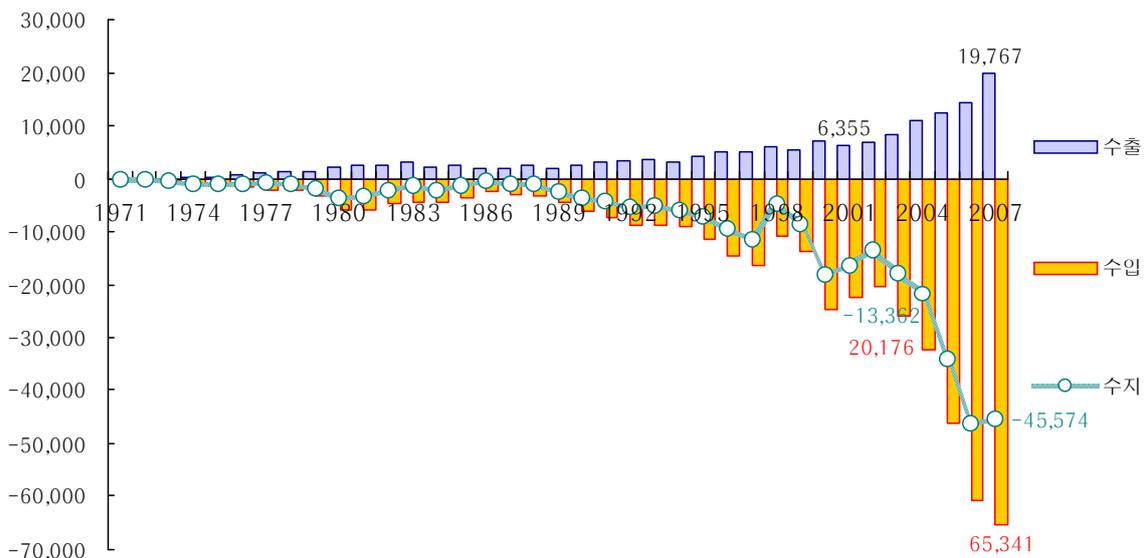
### 3-2. 對 中東 무역 적자 확대

○ (對 中東 무역 적자 확대) 2003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對 中東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對 中東 수출은 2002년 6.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23.7%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197.7억 달러를 기록함
- 對 中東 수입은 2003년 261.7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25.7%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653.4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보다 빠른 수입 증가속도에 의해 무역수지의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음
  - 對 中東 무역수지의 적자 폭은 2003년 178.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확대되어 2006년에는 사상최대 적자 폭인 463.1억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對 中東 수출 급증에 따라 무역수지의 적자 폭은 줄어들었으나 2003년에 비해 여전히 많은 455.7억 달러를 기록함

< 對 中東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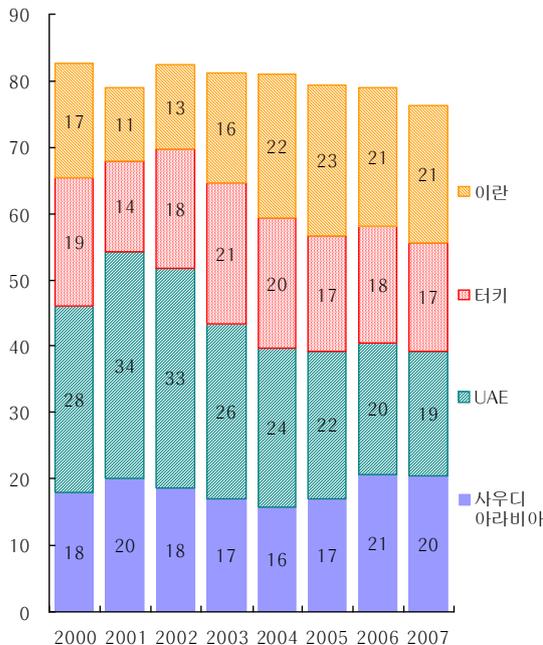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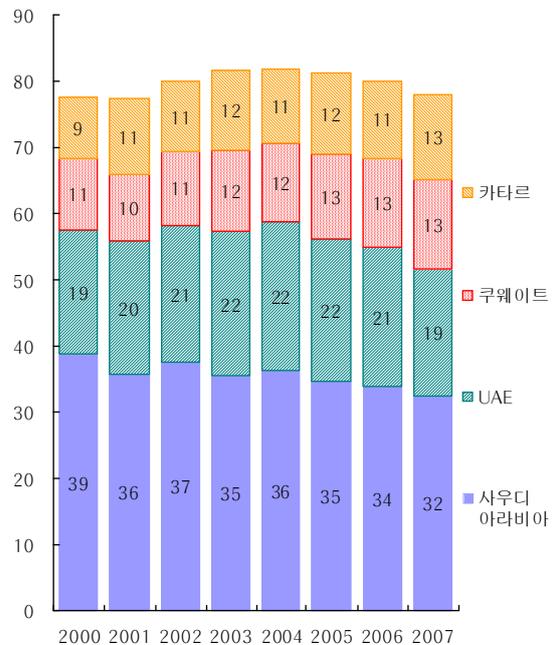
### 3-3. 교역 구조의 편중

- (교역 구조의 편중 심화) 중동 지역에 대한 교역은 일부 국가와 일부 상품에 편중되어 있음
- (對 중동 교역은 일부 국가에 편중) 중동 13개 국가 중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이란에 그리고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 편중되어 있음
- 주요 수출 국가 : 對 중동 수출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이란의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대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입 국가 : 對 중동 수입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의 GCC 4개국 차지하는 비중 역시 70~80%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중동 주요 국가의 수출 비중 >  
(단위: %)



< 중동 주요 국가의 수입 비중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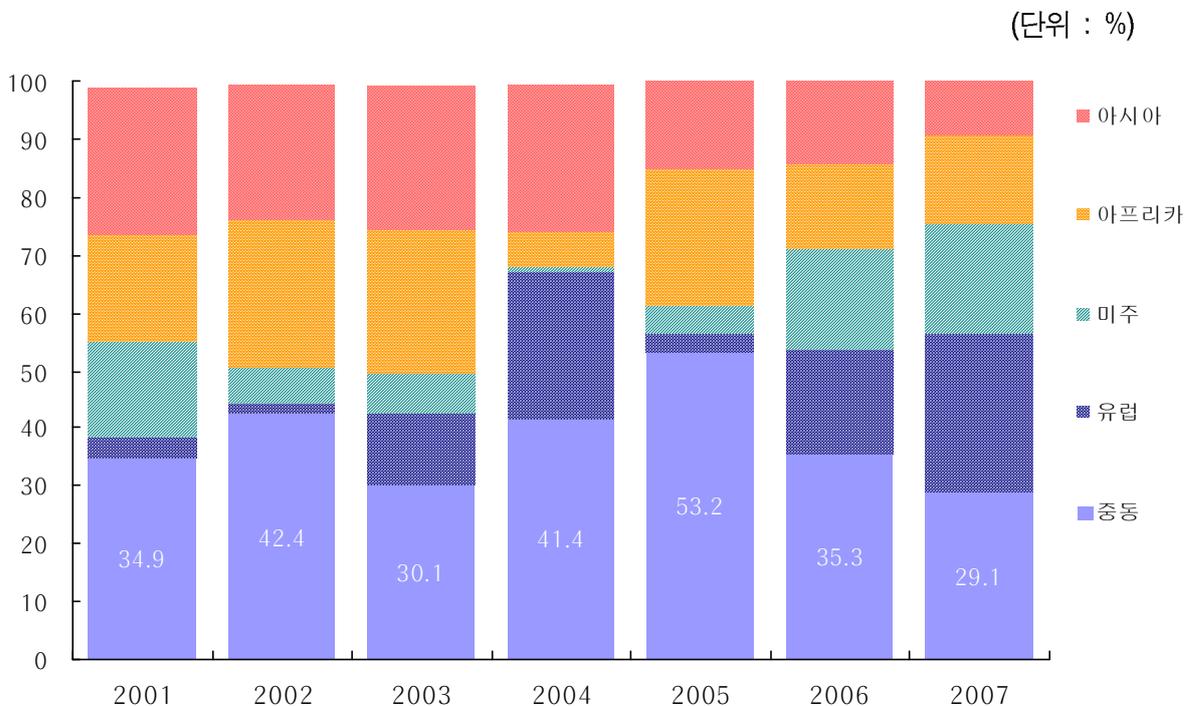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플랜트 수출에 편중된 對 중동 수출 구조) 플랜트 수출 중 중동의 비중이 크며 또한 對 중동 수출에서 플랜트의 비중 역시 크지만, 최근 들어 對 중동 플랜트 수주의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음

- 플랜트 수출 중 중동의 비중이 큼 : 지역별로 구분한 플랜트 수주 금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플랜트 수주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3.2%로 정점에 달했으며, 2006년과 2007년 감소하였음
  - 2007년 플랜트 수주 실적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분석 기간 중 최저를 기록했으나, 이는 유럽의 27.4%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플랜트 수주의 연평균 비중을 살펴본 결과, 비중은 중동 지역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아프리카 17.3%, 유럽 17.1%, 아시아 15.7%, 미주 13.5% 순을 기록함

< 지역별 플랜트 수주 실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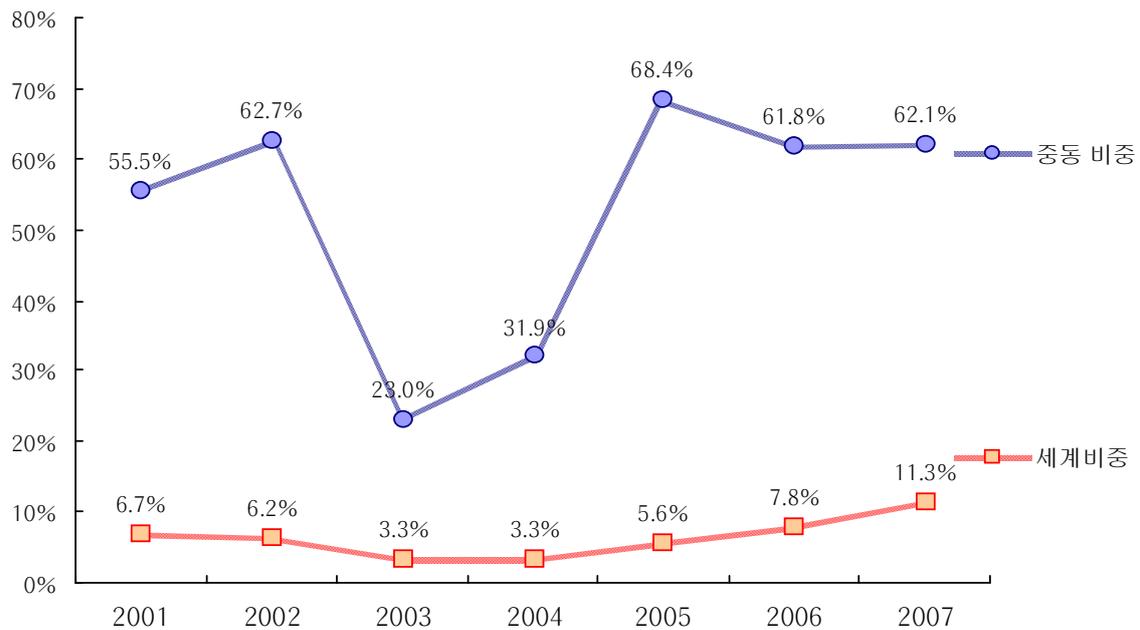


자료 : 지식경제부.

- 플랜트 수출에 편중 : 對 중동 수출 중 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60%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對 세계 수출 중 플랜트 수주의 비중은 2004년 이후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4년의 3.3%에 비해 2.45배 증가한 11.3%를 기록함
  - 반면 한국의 對 중동 수출 중 플랜트 수주의 비중은 2005년 68.4%로 급증했으며, 이후 60%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동 수출 중 플랜트 수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수출이 주로 플랜트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수출에서 차지하는 플랜트 수주의 비중 >

(단위 : 억 달러)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 對 중동 플랜트 수주 속도 감소 : 플랜트 수주 금액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대 중동 플랜트 수주 속도는 세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 한국의 플랜트 수주 실적은 2001년 101.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2년과 2003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높은 증가율로 성장함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플랜트 수주 실적은 1,183억 달러였으며, 이 중 중동은 428.3억 달러로 약 36.2%를 차지함
- 한국의 對 중동 플랜트 수주 실적은 2003년의 19.2억 달러를 제외하고 증가세에 있음
- 2007년 對 중동 플랜트 수주 실적은 분석 기간 중 사상 최대 금액인 122.7억 달러를 기록함
- 2004년과 2005년 對 중동 플랜트 수주 실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84.1%와 143.1%로 동기 對 세계의 31.2%와 89.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對 중동 플랜트 수주의 증가 속도는 각각 6.7%와 36.8%로 對 세계 증가 속도인 60.6%와 6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지역별 플랜트 수주 실적 추이 >

(단위 : 억 달러, %)

구분	중동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계
2001년	35.3 (-)	3.6 (-)	17.0 (-)	18.4 (-)	25.7 (-)	1.2 (-)	101.2 (-)
2002년	42.7 (21.0)	1.8 (-50.0)	6.6 (-61.2)	25.6 (39.1)	23.3 (-9.3)	0.7 (-41.7)	100.7 (-0.5)
2003년	19.2 (-55.0)	7.7 (327.8)	4.6 (-30.3)	15.8 (-38.3)	15.9 (-31.8)	0.5 (-28.6)	63.7 (-36.7)
2004년	34.6 (80.2)	21.6 (180.5)	0.6 (-87.0)	5.1 (-67.7)	21.3 (34.0)	0.4 (-20.0)	83.6 (31.2)
2005년	84.1 (143.1)	5.2 (-75.9)	7.5 (1,150.0)	37.5 (635.3)	23.9 (12.2)	0.0 (-100.0)	158.2 (89.2)
2006년	89.7 (6.7)	47.2 (807.7)	43.7 (482.7)	37.2 (-0.8)	36.2 (51.5)	0.0 (0.0)	254.0 (60.6)
2007년	122.7 (36.8)	115.7 (145.1)	79.3 (81.5)	65.6 (76.3)	38.3 (5.8)	0.0 (0.0)	421.6 (66.0)
계	428.3	202.8	159.3	205.2	184.6	2.8	1183.0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對 中東 交易은 일부 商品에 편중) 한국의 對中東 수출 및 수입이 일부 商品에 편중되어 있음

- 수출 편중 : 對 中東 수출 중 2007년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의 수출 비중은 39.6%에 달함
  - 2007년 기준으로 대 중동 수출 중 상위 5대 품목에는 자동차, 철강판,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이 포함됨
  - 5대 주요 품목의 수출은 1995년 8.9억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78.3억 달러로 약 8.8배 증가함
  - 또한 수출 중 5대 주요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21.3%였으나, 2007년에는 39.6%로 약 18.3%p 증가함
  - 자동차는 2000년 이후 대 중동 수출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는 2006년과 2007년 5대 품목에 포함됨

< 對 中東 수출 중 상위 5대 품목 추이 >

(단위 : 억 달러)

구분		자동차	철강판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무선 통신기기	계
1995년	순위	2	8	44	11	19	
	금액	6.7	1.0	0.1	0.7	0.5	8.9
	비중	15.9%	2.3%	0.3%	1.6%	1.1%	21.3%
2000년	순위	1	15	2	14	4	
	금액	10.0	1.4	7.2	1.5	3.8	23.7
	비중	14.1%	2.0%	10.1%	2.1%	5.3%	33.6%
2005년	순위	1	3	8	5	2	
	금액	24.5	6.7	4.1	5.2	8.3	48.8
	비중	20.0%	5.4%	3.3%	4.2%	6.8%	39.7%
2006년	순위	1	2	11	5	4	
	금액	28.8	9.4	3.3	6.1	7.3	54.9
	비중	19.8%	6.5%	2.3%	4.2%	5.0%	37.8%
2007년	순위	1	2	3	4	5	
	금액	36.8	11.3	10.7	10.1	9.5	78.3
	비중	18.6%	5.7%	5.4%	5.1%	4.8%	3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 편중 : 對 중동 수입 중 2007년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의 수입 비중은 97.7%에 달함
  - 2007년 기준으로 대 중동 수입 중 상위 5대 품목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 제품, LPG, 석유화학합성원료가 포함됨
  - 5대 주요 품목의 수입은 1995년 106.5억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638.7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함
  - 5대 주요 수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81.2%를 제외하고 9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중 5대 주요 수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94.1%였으나, 2007년에는 97.7%로 약 3.6%p 증가함
  - 원유는 중동 수입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1995년 83.1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486.4억 달러로 5.8배 증가함

< 對중동 수입 중 상위 5대 품목 추이 >

(단위 : 억 달러)

규모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LPG	석유화학 합성원료	계
1995년	순위	1		2	3	5	
	금액	83.1	0	12.9	8.7	1.8	106.5
	비중	73.4%		11.4%	7.7%	1.6%	94.1%
2000년	순위	1	7	3	5	9	
	금액	178.4	1.8	13.0	8.3	0.8	202.3
	비중	71.6%	0.7%	5.2%	3.3%	0.3%	81.2%
2005년	순위	1	3	2	4	5	
	금액	345.6	42.3	45.2	16.2	3.8	453.3
	비중	74.4%	9.1%	9.7%	3.5%	0.8%	97.6%
2006년	순위	1	2	3	4	5	
	금액	457.1	62.4	49.2	21.8	3.5	594.1
	비중	75.2%	10.3%	8.1%	3.6%	0.6%	97.7%
2007년	순위	1	2	3	4	5	
	금액	486.4	70.9	52.1	25.6	3.8	638.7
	비중	74.4%	10.8%	8.0%	3.9%	0.6%	9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3-4. 인적 교류 미흡

○ (중동과의 인적 교류 미흡) 2000년대 들어 출국자 수와 입국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경우 출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對 중동 인적 교류가 미흡함

- 입국자 수보다 많은 출국자 수 : 2002년까지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많았으나 2003년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역전됨
  - 對 세계 입국자 수는 2002년(439만 명)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2005년에는 950만 명을 기록함
  - 對 세계 출국자 수는 2002년(669만 명)까지 증가하다, 2003년(385만 명) 급감한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여 2005년에는 518만 명에 달함
- 출입국자 수 비중이 큰 아시아 : 對 아시아 출입국자 수 역시 2002년까지 입국자 수가 출국자 수보다 많았으나 2003년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역전됨
  - 對 아시아 입국자 수는 2002년(336만 명)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2005년에는 740만 명으로 전체 입국자 수의 78.2%를 기록함
  - 對 아시아 출국자 수는 2002년(489만 명)까지 증가하다, 2003년(290만 명) 급감한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여 2005년에는 403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출국자 수의 77.8% 수준임
- 인적 교류가 부진한 중동 지역 : 2002년까지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많았으나 2003년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역전됨
  - 對 중동 입국자 수는 2000년(1.4만 명)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2005년에는 8.8만 명으로 전체 입국자 수의 0.9%를 기록함
  - 對 중동 출국자 수는 2002년(3만 명)까지 증가하다, 2003년(1.7만 명) 급감한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여 2005년에는 1.8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출국자 수의 0.3% 수준임
  - 이처럼 한국의 출입국자 수 중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적은 것은 중동과의 인적 교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지역별 출입국자 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 동	입국	14,124 (0.3)	12,327 (0.3)	18,271 (0.4)	39,696 (0.6)	55,070 (0.7)	87,561 (0.9)
	출국	18,602 (0.4)	23,873 (0.4)	30,370 (0.5)	12,683 (0.3)	17,710 (0.4)	17,832 (0.3)
아시아	입국	3,426,656 (78.4)	3,354,355 (78.5)	3,361,781 (76.5)	4,840,438 (72.9)	6,387,727 (76.8)	7,425,212 (78.2)
	출국	3,489,555 (68.2)	4,056,311 (71.2)	4,889,982 (73.1)	2,898,781 (75.3)	3,826,062 (77.6)	4,030,720 (77.8)
북아메리카	입국	568,471 (13.0)	540,077 (12.6)	586,458 (13.4)	901,077 (13.6)	856,915 (10.3)	884,705 (9.3)
	출국	913,769 (17.9)	882,045 (15.5)	920,577 (13.8)	548,360 (14.2)	649,039 (13.2)	665,717 (12.9)
남아메리카	입국	17,004 (0.4)	17,605 (0.4)	26,628 (0.6)	17,281 (0.3)	17,554 (0.2)	17,277 (0.2)
	출국	24,082 (0.5)	24,069 (0.4)	18,763 (0.3)	14,288 (0.4)	18,228 (0.4)	20,502 (0.4)
유럽	입국	280,585 (6.4)	281,213 (6.6)	320,872 (7.3)	472,436 (7.1)	543,723 (6.5)	589,293 (6.2)
	출국	374,071 (7.3)	400,448 (7.0)	446,445 (6.7)	298,234 (7.7)	327,708 (6.6)	349,450 (6.7)
오세아니아	입국	47,484 (1.1)	53,661 (1.3)	59,910 (1.4)	353,083 (5.3)	435,357 (5.2)	466,268 (4.9)
	출국	269,897 (5.3)	291,178 (5.1)	365,897 (5.5)	59,070 (1.5)	72,012 (1.5)	78,862 (1.5)
아프리카	입국	14,416 (0.3)	15,277 (0.4)	16,797 (0.4)	19,184 (0.3)	26,124 (0.3)	30,527 (0.3)
	출국	24,406 (0.5)	18,098 (0.3)	20,825 (0.3)	15,162 (0.4)	16,097 (0.3)	16,298 (0.3)
세 계	입국	4,370,596	4,275,696	4,392,725	6,643,337	8,322,632	9,500,982
	출국	5,115,359	5,696,313	6,693,029	3,849,950	4,929,517	5,179,848

자료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 : 괄호는 지역별 비중을 나타냄.

### 3-5. 에너지 협력 기반 미약

○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동과의 외교 미흡) 그동안 외교는 수출 시장 개척에 치우쳤으며, 이 때문에 수입 특화된 중동 지역과의 외교가 미흡했음

- 외교는 주로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한 무역 수지 흑자 폭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경우 2001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2년 6월 에너지정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안보를 대 원칙으로 정함
  - 중국 역시 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단순히 자원 수입이 아닌 자원 보유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내세우고 있음
- 한국 정상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2002년 이전 2회, 참여 정부 5회로 아시아 총 64회, 유럽 40회, 북미 31회 등에 비해 외교적 노력이 부족

< 한국 정상의 지역별 해외 방문 횟수 >

구 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계
이승만 (1950년 대)	2	-	2	-	-	-	4
박정희 (1960년 대)	6	1	5	-	-	-	12
최규하 (1970년 대)	-	-	-	-	-	2	2
전두환 (1981~1986)	7	4	3	-	4	-	18
노태우 (1987~1992)	7	6	6	1	-	-	20
김영삼 (1993~1997)	13	7	4	6	-	-	30
김대중 (1998~2002)	11	7	5	1	-	-	24
노무현 (2003~2007)	18	15	6	6	4	5	54
계	64	40	31	14	8	7	164

자료 : 임종석 「실태와 전략-원유 위기와 에너지 전략」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년 참조.

7) 임종석, 「실태와 전략 - 원유 위기와 에너지 전략」,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3-6. 경제 교류 확대 정책 부재

○ (경제 교류 활성화 기반 미흡)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했으나, 중동 지역의 경우 단지 GCC와 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

-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European 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함
- 또한 EU, ASEAN,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등과 FTA가 진행 중이지만, 중동 지역 중 GCC 국가와는 단지 FTA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구분		추진 단계
진행 중인 협상	한·EU	- 2007년 5월 한·EU 협정 공식 선언 - 2002년 3월 서비스투자분과 회의(파리)
	한·ASEAN	-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 2007년 11월 서비스 협정 서명
	한·캐나다	- 2005년 7월 15일 협상 출범 합의 공식 발표 - 2007년 6월 제 1차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오타와)
	한·인도	- 2006년 2월 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 선언 - 2007년 12월 제9차 협상 개최(뉴델리)
	한·일본	- 2003년 10월 양국정상, 정부간 공식 협상 개시 합의(방콕) - 2004년 11월 제6차 협상(동경)
	한·멕시코	- 2005년 9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추진 합의(멕시코) - 2007년 12월 제1차 협상 개최(멕시코)
협상 준비	한·중	- 2004년 9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 2008년 2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4차 회의(제주)
	한·MERCOSUR	- 2004년 11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7년 10월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 연구 발표
	한·GCC	- 2007년 3월 FTA 추진 합의 - 2007년 11월 한·GCC 사전 협의 개최(리야드) - 2008년 1월 한·GCC FTA 공청회 개최(서울)

자료 : 외교통상부.

주 : MERCOSUR의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여, GCC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6개국임.

#### 4. 예상 기대 효과 및 활용 전략

-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큰 중동)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 국가들의 오일 머니를 잘 활용하면 제2의 중동 붐에 의한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가가치 유발 효과** : 2007년 중동 건설 시장 점유율이 2007년 24.9%에서 2010년에 30%로 확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8~2010년까지 총 36.1조 원으로 2007년 대비 연간 1.3%씩 총 4%의 GDP 성장 효과가 기대됨
- **수출 증대 효과** : 전체 건설 수주를 수출 효과로 환산할 경우 2008~2010년까지 2007년 대비 연간 4.2%씩 총 12.5%의 수출 신장 효과가 기대
- **고용 증대 효과** : 중동 건설 수주 규모만큼 국내 건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2008~2010년까지 연평균 22.5만 명 씩 총 67.5만 명의 고용효과 기대
- **가계소득 증가** : 고용 창출 효과에 따르는 가계소득 증가 규모는 2008~2010년까지 연평균 7.6조 원씩 총 2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이는 2007년 개인 저축률 2.3%를 적용하면 총 5,267억 원의 가계 저축으로 이어져 투자 재원으로 활용, 국내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것임
- **자본시장 안정화** : 중동 국가들 중 국내 주식시장 주요 참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인데, 2007년 기준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이 30.6조 원의 순매도세를 보인데 반해 이들 국가들은 1.7조 원의 순매수를 보임

#### < 중동 건설수주의 경제 효과(2008~2010년) >

구분	내용	비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 총 36.1조 원 - 2007년 GDP 대비 4% 성장	- 2003년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유발계수 적용 - 직·간접 효과 포함
수출증대효과	- 2007년 대비 12.5% 상승	
고용증대효과	- 총 67.5만 명	- 2003년 산업연관표 취업유발계수 적용 - 직·간접 효과 포함
가계소득	- 22.9조 원(GDP 대비 2.5%)	- 2007년 월평균 전산업 근로자 평균 임금 적용
자본시장 안정화	- 2007년 기준 1.7조 원 규모 주식 순매수	- 2007년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은 30.6조 원 규모 주식 순매도

자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Global Insight.  
 주 1. 중동 건설 시장 점유율이 2010년에 2007년 24.9% 대비 5%p 확대될 경우를 가정.  
 2. 한국의 2007년 대중동 건설 수주 규모는 228억 달러이며, 2010년 중동 건설시장 규모는 Global Insight의 전망치인 1,554억 달러로 가정.

- (활용 전략) 중동 시장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심의 진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중동의 오일머니를 활용하고 소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산업 개발 및 소비 시장 개척) 중동의 플랜트 시장과 SOC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물류자동화 설비 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국내 소비재의 중동 진출 확대 등이 전략이 필요
  - 중동의 소비 시장 개척 : 한국 산업 발전 모형의 이식을 통해 한국 산업의 중동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동 각국과 한국의 산업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중동의 소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가칭 ‘한·중동경제교류회의’의 정기적 개최 : 정부 및 민간 경제인으로 이루어진 ‘한·중동경제교류회의’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한·중동간 경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對중동 산업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 중동 각국이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한국의 산업기술 및 산업인력에 대한 중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對중동 산업기술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한국의 고급 산업인력의 중동 진출 뿐 아니라 중동 내에서의 한국 기술 및 상품 수요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임
  
  - 관광 : 중동 각국들의 관광 산업 집중 육성 전략과 빠른 경제 성장에 의해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객 유입자 수는 향후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유망 분야로 등장할 것임
    - 관광객 유입자 수의 비약적 증가 전망 : World Tourism Organization<sup>8)</sup>에 의하면 중동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자 수는 2010년 3,6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6,9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관광 분야 투자 증가 : 싱가포르 거점의 호텔체인인 Banyantree는 2007년에 이미 바레인에 진출하였으며, Raffles 또한 두바이에 호텔 체인을 개장하는 등 국제적인 호텔 체인이 속속 중동에 진출하고 있음

8) UNWTO, OMT, BTO, *Tourism Highlights 2007 Edition*.

- **소매 및 유통** : 중동 지역은 관광 산업의 발전, 석유 판매 수입 증가에 따르는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향후 소매 및 유통 산업 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두바이를 거점으로 한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소매 매장의 확대** : Retail International社에 의하면 GCC 지역의 경우 2010년까지 약 1억 3,510만 평방피트의 신규 임대 소매 매장이 건설될 예정임
  - **중동 소매 및 유통 부문의 리더 두바이** : 이미 UAE 전체 소매 부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2010년까지 소매 부문 규모가 5,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중동 지역의 소매 및 유통 부문의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음<sup>9)</sup>
  - **세계 유수의 소매 및 유통 회사들의 진출<sup>10)</sup>** : Saks Fifth Avenue, Harvey Nichols, Virgin Megastore, Carrefour, IKEA 등 세계 유수의 고급 브랜드 및 유통회사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음

< GCC지역의 총임대 소매 매장 건설 전망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백만 평방 피트	1.4	5.1	9.7	22.3	53.2	135.1

자료 : Retail International; Simon Thomson, 'The Middle East Retail Real Estate Dynamic,' *Research Review*, Vol. 13, No. 1,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2006에서 재인용.

- **건강·의료** : 중동 지역의 건강·의료 시장 규모는 이미 1,000억 달러 선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많은 세계 유수의 관련 기관들이 진출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관련 전문 인력 시장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sup>11)</sup>
  - **UAE** : 건강·의료 시장 규모는 2005년 32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19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9) 'Dubai Leads Retail Growth in Middle East', *Gulf News*, March 12, 2008.

10) Phil McArthur, 'A Retail Oasis: The Middle East Industry,' *Research Review*, Vol. 13, No.1,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2006.

11) 이하 Business Week, *Saudi Arabia Intelligent Infrastructure*, Special Advertising Section, 2007; 'VLCC plans \$54.5mn expansion in Middle East,' *The Economic Times*, February 17, 2008; Booz Allen Hamilton, 'The New Saudi Arabian Healthcare Market,' March 12, 2007; AME Info, 'Middle East Healthcare Market Estimated over \$100bn,' October 31, 2007 참조.

- **사우디아라비아** : 건강·의료를 위한 비용은 2005년 총 13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까지 병원 수도 2007년 264개에서 500개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건강·의료 기기 뿐 아니라 각종 건강·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유명 건강의료 기관들의 진출** : VLCC(세계 최대 건강·미용 관련 업체 가운데 하나)의 경우 중동 지역에 2010년까지 5,450만 달러를 투자하여 35개의 건강 및 미용 관리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두바이의 경우 'Dubai Healthcare City'라는 건강·의료 관련 자유지역을 건설하여 Harvard Medical International이나 Mayo Clinic 등 세계적인 의료 기관을 유치하는 등 세계 유수의 건강·의료 관련 기관들이 중동으로 진출 중임
- **부족한 전문 인력** : 한편 중동 각국은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이 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 간병 전문 인력 등 고령자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된 인재 뿐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시장 또한 큰 기회 요인임

○ (중동의 오일 머니 활용) 가칭 '한·중동 투자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중동 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 금융기관의 중동 진출을 통해 중동의 오일 머니를 적극 유치·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함

- **금융 서비스** : 중동 각국들은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일 머니의 축적에 의한 대규모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유동 자산의 존재** : Capgemini와 메릴린치<sup>12)</sup>에 따르면 2007년 기준 GCC 지역에 있어서의 유동 자산은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 지역에서의 개인 금융 서비스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12) Capgemini & Merrill Lynch, *The 2007 World Wealth Report*.

- **중동지역 금융 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조사<sup>13)</sup>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금융 시장 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응답자 비중은 69%, 규제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자 비중이 66%로 나타나는 등 중동지역 금융 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보이고 있음
- **중동 금융 비즈니스 확대 전략은 주로 전략적 제휴** : 동 조사에 따르면 중동지역에서 금융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대할 경우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제휴 30%, 지역 금융회사와의 조인트벤처 22%, 지역 자회사 설립 21%, M&A 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패키지형 자원 외교 추진) 일본이나 중국 등에 뒤떨어진 대 중동 외교를 감안할 때 자원개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나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 등과 연계된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이 필요**

- **패키지형 자원개발** : 중동 국가들에 비해 엔지니어링, 건설, 인프라 설계 및 운용이 뛰어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비교 우위를 중동 지역의 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시켜 다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부형 연구위원 (lbk@hri.co.kr, 02-3669-4011)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02-3669-1425)

1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sset Management in the Middle East-The Prospects for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Economist*, 2007.

참고 문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 CapGemini & Merrill Lynch, *The 2007 World Wealth Report*.
- Drewry Shipping Consultant, *Annual Container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01~2007*.
- 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he Economic Bulletin*, Vol. 4, Issue. 36, June 2007.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The Economist, 2007.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sset Management in the Middle East-The Prospects for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Economist*, Aug. 2007.
- Phil McArthur, 'A Retail Oasis: The Middle East Industry,' *Research Review*, Vol. 13, No.1,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2006.
- Qatar Financial Centre, *Annual Report 2006*.
- Simon Thomson, 'The Middle East Retail Real Estate Dynamic,' *Research Review*, Vol. 13, No. 1,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2006.
- Saudi Railway Organization.
- UNWTO, OMT, BTO, *Tourism Highlights 2007 Edition*.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AIG Travel Guard 25/02/2008*, 2008.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06 Climbing to New Heights*, 2007.
- 'Dubai Leads Retail Growth in Middle East,' *Gulf News*, March 12, 2008.
- 'Middle East Healthcare Market Estimated over \$100bn,' *AME Info*, October 31, 2007.
- 'Saudi Arabia Intelligent Infrastructure,' *Business Week*, Special Advertising Section, 2007.
- 'The New Saudi Arabian Healthcare Market,' *Booz Allen Hamilton*, March 12, 2007.
- 'VLCC plans \$54.5mn expansion in Middle East,' *The Economic Times*, February 17, 2008
- 週間ダイヤモンド, 2008年 3月 15日.

新興証券「國富ファンド(SWF)脅威か-投資家としての中東中國ファンド」2008年 1月 23日.

住商總研「ワールド・フォーカス」No. 25, 2008年 3月.

竹石禮司「中東經濟, 發展の課題」『研究レポート』 No. 169, 2003年 6月.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GCC諸國の經濟-經濟多様化と石油価値連鎖の擴大」, 2/3, 2008年.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湾岸地域へのオイルダラー還流實體」, 2/3, 2007年.

日本政策投資銀行「躍進する中東湾岸經濟とその投資環境-日本企業の中東(ドバイ/GCC諸國)投資の課題と將來性」2007年 6月.

吉田健一郎, 「中東諸國のオイルマネーの行方-主要産油國の經濟政策と原油收入の使途」みずほ総合研究所, 2007年 11月.

박복영·박철영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중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임종석 「실태와 전략-원유 위기와 에너지 전략」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년.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무역협회

JETRO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제 고용 창출력 약화 지속

○ 4월 중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 1,000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35만명에 크게 미치지 있음

- 4월 현재 취업자수는 237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8%(19만 1,000명) 증가에 그쳐, '07년 6월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율 수치를 보임
-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도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지속
- 취업자는 전월대비(계정조정계열) 5,000명 증가, 실업자는 1만8,000명 증가,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연간	2007		2008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7(0.7)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8	2.9	4.2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1.0	-1.9	0.4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2	5.3	-
		수출	14.4	14.1	9.4	18.2	17.5	18.8	18.6	27.0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5	10.2	10.0	-
	공급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288	2,331	<b>2,449</b>
		실업률 (%)	3.5	3.2	3.1	3.0	3.4	3.5	3.4	<b>3.2</b>
		수입	18.4	15.3	7.3	25.9	28.2	27.6	25.9	23.7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24	-1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2	-7	0	
물가	소비자물가	2.2	2.5	2.3	3.3	3.8	3.6	3.9	4.1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코스피 지수 및 원/달러 환율 연고치 경신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소폭 강세

- **금리**: 4월중 수입물가지수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산 되면서 3.91%까지 상승하였으나,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으로 마감 (국채 10년물 : 3.77→ 3.81%)
- **환율**: 달러화는 유로존의 산업생산부진으로 유로화에 소폭 강세를 보였고, 미 증시 호조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 시현 (\$/€ : 1.5482→1.5448, ¥/\$ : 102.86→104.75)

○ (국내 금융 시장) 금리 상승세 지속

- **주가**: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투자심리가 안정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세가 가세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1,823.7→ 1,888.9)
- **금리**: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4월 수입 물가지수가 30%(전년동월비, 원화기준) 이상 상승하였다는 발표로 물가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22→ 5.31%)
- **환율**: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사 등의 대규모 결제 수요 등에 따른 영향으로 1,501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유입 및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1,044.6→ 1,041.00)

○ (전망) 주가의 급등에 따른 소폭 조정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5.9	5.16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823.7	1,823.7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22	5.31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44.7	1,045.1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2,745	12,993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655	14,251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3.77	3.81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56	1.68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482	1.5448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2.86	104.75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18.38	119.09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5.15) 기준